

기윤실 좌담회

4.27 남북정상회담

툐아보기

2018년 4월 30일(월) 오후 7시 30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강의장

4.27 남북정상회담 톺아보기

윤환철 (미래나눔재단)

□ 선언 합의에 이르기까지

- 4.27 남북정상회담은 그 자체로도 우리와 세계인들을 위로하기에 충분
- 2017년 말까지 북-미 간 말싸움 → 세계인들을 위축시킴.
- 가시적인 변화는 2018년 1월 1일金正은의 육성 신년사부터
 -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2월 19일(대통령 전용열차) “88 서울올림픽이 냉전구도 종식과 동서 진영의 화합에 큰 기여를 했다면 이번 올림픽은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에 물밑 작업을 하고 있음을 내비침.
- 트럼프는 평창올림픽도 변함없이 대북압박 모멘텀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으려함.
 - 2006년에 탈북한 장애인 지성호 씨를 자신의 연설장과 백악관에 초청
 -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송환 후 사망한 오토 워비어의 아버지 프레드 워비어를 ‘특별손님’ 자격으로 대동하고 평창에 와서 천안함 기념관 등을 방문
 - 펜스와 이방카는 같은 방, 같은 관람석에 있던 북측 김영남이나 김여정을 애써 외면
- 야당과 보수언론들이 ‘홍행 실패’ 프레임으로 평창을 깎아내림.
- 홍행이 어려웠던 평창을 살린 건 북한 변수
 - 지면서도 말이 더 많은 아이스하키 단일팀과 선수단(47명 중 선수는 22명)
 - 그 8배쯤 되는 응원단과 공연단에 주목
- 대 반전
 - 이 흐름 속에서 김여정과 김정은의 친서가 전달됐고(2.10) →
 -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가 북한에(3.6) →
 - 북한의 대화 의지가 트럼프에게(3.9 한국시각) 전달즉시 수락
- 김정은의 친서는 문 대통령의 방북을 초청 → 특사교환 끝에 결국 김정은의 방남으로 귀결(문 대통령의 순간적인 방북)
- 판문점의 당일일정
 - 이전 회담이 가졌던 상징성 보다는 의제와 실질적 진전에 초점
 - ‘판문점’이 보여주는 현장성과 극복의지가 또 다른 상징성을 보여줌.

□ 선언문 내용

- ‘평화’가 앞선 것은 나머지 둘의 전제조건이자 유지조건
- ‘통일’이 뒤에 있는 것은 평화보다 앞서서는 안 되며 여건이 무르익어야 여문 것을 볼 수 있다는 통찰
- ‘번영’은 어느 집단이나 욕망하는 합리성
- 선언의 행간은 ‘인정(認定)’
- ‘개성지역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 개성공단 가동 시 이미 존재했던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가 승격되는 셈
 - ▷ 1층(南): 통일부, 경제부처, 무역협회 등 15명 안팎
 - ▷ 2층(北): 북한의 민족경제협력연합회(북한의 대남 민간부문 교류협력 가운데 경제협력 문제 전담한 단체) 등에서 파견된 북쪽 인력 10여명 상주
 - 선언 이후 문 대통령은 “여건이 되면 각각 상대방 지역에 연락사무소를 두는 것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 ‘민족공동행사’와 국제 체육교류(평창을 통해 긍정적 효력 확인)
 - 명절, 공통의 기념일 ← 남북이 공유하는 역사적 유산 → 미래의 남북 통합의 근거
- 이산가족 등 인도적 조치는 그 양과 질이 더 중요
 -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은 필수 불가결
- ‘서해 북방한계선’ → 2013년 노무현-김정일 대화록 왜곡사건을 의식한 파격적 선택
 - 2013년 조선일보,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앞에서 NLL을 포기하고 비굴한 회담을 하였다고 연일 보도
 - 조선일보 홈페이지에 올린 대화록의 전문에는 정 반대의 내용.
 - 당시 여론은 왜곡된 언론에 휘둘림.
 - 북은 NLL을 인정하지 않던 대내외적 명분을 포기 → ‘평화수역’을 얻는 것이 합리적
 - ▷ 서해의 해산물은 북으로서는 무시하지 못할 외화박스
 - ▷ 꽃게잡는 어민들은 금어기에 국내 유람도 다님.
- 선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전당사자 모두를 소환하는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
 - 이 의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통일’개념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제외
 - 미국이 그토록 원하는 ‘비핵화’도 ‘완전한’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명시
 - ▷ 구체적 내용은 북미회담을 위해 남겨둠
 - ▷ 문재인 정부는 분주하게 조율 작업을 진행중일 것으로 예상
 - ▷ ‘가상의 남북미 정상회담’이라는 평가(핵 문제는 기본적으로 북-미 간의 게임)

□ 선언 이후

- 기대 이상의 선제조치
 - 평양 표준시를 철회(5.5부터)
 - 풍계리 시험장 불능화에 참관단 초청
- 남측은 대북확성기 철거(국방비리 증거물)
- 북미 정상회담과 비핵화는 인류 최초
 - 종전선언 → 비핵화 → 평화협정 → 북미수교 → 동북아안보협력기구 등의 프로세스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
 - 난관은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와 CVIG(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Guarantee)의 교환방식
- 북미 수교의 과정
 - 미국측에서는 핵 사찰을 위해 북한 전역을 뒤지겠다는 과욕을 자제해야
 - 북측에서는 미국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애써 개발한 핵무기들을 먼저 불능화 해야
 - 북미 간 신뢰의 허점 → 우리 정부가 나서 '이행보증보험', 혹은 허브역할 필요
- 남북미중, 일본과 러시아를 포함 동아시아 핵심국들로부터 한반도평화를 국제규범화 하는 작업이 필요
 - 중국은 휴전협정의 당사자이자 전통적 북중 관계를 유지해 온 주요 이해당사자
 - 궁극적으로는 '동북아안보협력기구'와 같은 구상
 - ▷ 중-일, 한-일 간 영토분쟁 등 여타의 갈등 들을 유보(남북 대화에서 한미연합훈련과 같이 상호 모순적 현실을 유예하는 방식을 모델로)

□ 교회와 시민사회

- 남북문제의 당사자인 남북의 대중들이 논의의 주인이 돼야 함.
- ‘종전’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벌써 ‘통일’에 대한 기대감 ← 각 단계를 이해할 필요.
- 여전히 명백한 성과들을 폄하하는 언술도 나타남 … 치유가 필요함.
- ‘통일’이 무엇이나 하는 규정부터 미래세대가 하도록 열어두어야 함.
 - 기성 세대가 ‘우리가 손해보는 것’으로 규정해 둔 통일은 미래세대 수용불가.
 - 스스로 디자인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줘야 함.
- ▷ 우리의 정치를 우리가 만들고 교정하는 것처럼, 남북 간의 관계와 그 결과도 당대의 희망을 담아 교정하고 디자인할 수 있음.
- 햇볕정책은 말씀 묵상의 산물(임동원 전 통일부장관, 로마서 12장 17~21절)
 - 화해 → “네가 직접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 협력 → “네 원수가 굶주리거든 먹을 것을 주라”
 - 붕괴가 아니라 변화 →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 평화우선의 통일관 →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롭게 지내라”
- 한국의 보수 교회가 과감하게 지지했던 정권들은 남북 화해의 국면에 기여하지 못함.
- 지금은 교회가 ‘냉전의 섬’이 될까 염려 → 극보수적인 유명 목회자 몇몇이 냉전의 섬이 돼 가고 있음. → 전도의 문이 막힐 우려.
- 교회는 냉전 공포에 스스로 사로잡히는 이데올로기의 길을 버리고 임동원과 같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묵상을 공유하고 평화의 명령을 내재화 하는 길을 걸어야 함.
- 평화의 신학과 목회방식을 개발하고, 온갖 마타도어와 네거티브에서 벗어나야 함. ㉞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 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열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①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 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 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 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 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①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